

서울 당석초등학교 2학년 3반 62번 최민서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바람이 불지만
해가 쨍쨍

제목 : 새 자전거

오늘 엄마,아빠께서 새 자전거를
사주셨다. 사주신 이유는 이번 어린이날
선물을 사주지 않아서 오늘 사준 것이다.
색깔은 핑크색이고 라이트와 반사등이
있다. 바퀴와 자전거에 파랑색이 섞여
있어서 안장만 파랑색으로 바꾸면
남동생에게 물려줄 수 있다. 나는 나중
에도 탈수 있겠지 부모님께 여쭙어
보았다. 부모님께서 한 4~5학년 까지
는 탈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
하셨다. 이 자전거는 반으로 접을 수
있어서 차에 실을 때 접어서 트렁크
에 넣어서 가면 된다. 나는 그 자
전거가 내가 탄 자전거 중에
제일 좋다. 왜냐면 핑크색이고
내가 산 두발 자전거는 이게 처
음 산 거라서 더 좋아하는 것
이다.